

(Abstracts) AI 시대, 대학교육의 재설계

시 간	(150')	주 요 내 용	연 사
13:30~13:35	(5')	○ 개회사	이광형 총장
13:35~13:50	(15')	○ 발제 ① 지속가능한 지성: AI 이후에도 남는 인간 역량 본 발제는 AI가 지식 생산·분석·표현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거나 증폭시키는 시대에,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가치가 남는 “인간의 역량”이 무엇인지 재정의하고자 한다. 단순한 정보 암기나 정형적인 과업 수행이 아니라, 문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능력, 불확실성 속에서 판단을 내리는 비판적 사고, 타인의 관점과 맥락을 이해하는 공감과 소통, 윤리와 책임을 동반한 의사결정, 그리고 여러 영역을 연결해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창의적 통합 능력이 핵심 역량으로 부상한다. 또한, AI를 도구로 활용하되 의존을 경계하는 인지적 주권과 학습 민첩성을 지속가능한 지성의 기반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량을 개인·조직·대학 교육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평가하며, AI 활용 역량과 균형 있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가능한 통합 교육 플랫폼을 논의한다.	홍승범 교수 KAIST 교무처장
13:50~14:05	(15')	○ 발제 ② AI-Dependent vs AI-Augmented: 의존과 확장의 경계 설정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대학 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사고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본 발제에서는 AI가 인간의 사고를 대체하는 AI-Dependent(의존적) 구조와 사고를 확장하는 AI-Augmented(확장적) 구조를 구분하고, 그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준거를 수학 연구의 세 단계—문제 정의, 도구 개발, 결론 도출—를 통해 논의한다. 특히 구글 딥마인드의 수학 난제 해결 사례는 AI가 결론 도출과 검증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지만, 가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프레임을 창안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 영역임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 정의 역량 강화, 비판적 검증의 습관화, AI 없이도 작동 가능한 인간 고유의 사고 구조 설계를 핵심 교육 방향으로 제안하며, Harvard 및 Oxford 등의 최신 대응 사례를 통해 KAIST 교육 혁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백형렬 교수 KAIST 수리과학과 / AI 수학대학원
14:05~14:20	(15')	○ 발제 ③ AI 의존과 사고 역량의 재설계: 현장 중심 학습의 필요성 AI를 활용하면 과제는 더 잘 수행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학습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최근 실증 연구들이 수학, 의료, 코딩 등에서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역설적 현상으로, 대학 교육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본 발제에서는 AI 없이 코딩을 배운 적 없고, AI 튜터와 함께 성장한 'AI Native 세대'의 등장이 역량 형성과 성장의 조건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진정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세 가지 조건(Challenge, Complexity, Connection)을 제시하고, AI	김주호 교수 KAIST 전산학부

		<p>시대 대학 교육이 '생산성'과 '역량 형성'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논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제 ④ <p>코드를 가르치지 않는 컴퓨터과학: 스탠퍼드는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p> <p>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직업적 위상이 가장 위협받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스탠포드에서는 지난 가을 "The Modern Software Developer"라는 이름의 수업을 통해, 코드를 직접 많이 작성하기보다 AI를 활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 일명 "바이브 코딩"을 전면에 내세운 교육을 시도하였다. 지금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육이며 산업 친화적인 수업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AI에 의존하는 법만 익히다 보면 기초 코딩 역량이 약해지거나 사람이 덜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만큼 바이브 코딩을 배우는 것 자체가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시대에 대학에서는 컴퓨터 과학과 AI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지금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AI 활용과 기초 역량 교육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p>	<p>성민혁 교수 KAIST 전산학부 교수</p>
14:20~14:35	(15')		
14:35~14:5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ffee Break 	
14:50~16:00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널 토론 (40') <p>AI 시대 KAIST 교육의 핵심 역량과 교수-학습 전환 방향</p>	<p>(좌장) 홍승범 KAIST 교무처장 (패널리스트) 발제자 3인 + 홍승훈 KAIST 전산학부 교수 윤성환 UNIST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진행) 김용희 국가미래전략 기술정책연구소 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Rump Session* (30') <p>미래교육을 둘러싼 인식의 다양성과 쟁점</p>	